



충남 공주시 반포 · 계룡면, 논산군 두마면

천하 제일의 대길지....

## 계룡산 鷄龍山(845m)

**차**령산줄기의 한줄기가 금강의 침식으로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된 산으로 솟았다. 대전시 공주시 논산군의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충남 제일의 명산으로 차령산 줄기와 노령산줄기의 사이에 이룩된 산지로서 기복을 이룬 능선이 마치 닭벼슬을 쓴 용의 형상과 같다고 하여 계룡(鷄龍)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계룡산의 최고봉은 845m로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의 모습이 수려하고 수석이 풍부하여 이미 삼국시대부터 백제를 대표하는 명산으로 알려졌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전국 5대 명산 중의 하나인 서악(西岳)으로 지칭되었고 풍수가들은 이 산의 지리를 회룡고조(回龍顧祖: 산의 지맥이 뱅 돌아서 본 산과 맞서는 형국)의 형세, 혹은 산태극 수태극(水太極)의 형세로 보고 매우 진기하게 여겼다.

이처럼 산세가 특이해서인지 계룡산에는 불교를 비롯한 온갖 신앙을 그 품에 안고 숭한 설화와 전설이 숨쉬고 있다.

계룡산의 동 서 남 북에는 4대사찰이 있었는데, 동쪽의 동학사(東鶴寺)와 서쪽의 갑사(甲寺), 남쪽의 신원사(新院寺)는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으나 북쪽의 구룡사(九龍寺)는 절터만 남아 있다.

빼대만 드러내고 다투어 솟아오른 봉우리는 ㄷ자형의 능선을 이루었고, 남, 북으로 길게 주능선을 이루었는데 등산코스로서는 갑사나 동학사를 기점으로 하는 코스가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백제문화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1968. 12. 31. 총면적 60.98km<sup>2</sup>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교통편이 좋은 관계로 명산, 명소를 찾는 인파가 끊이지 않아 등산 인파도 주말이면 줄을 잇는다.

동학사 쪽에서 바라볼 때 계룡산이라고 이름한 뜻을 실감하게 되고 정상 일대의 능선, 쌀개능선, 자연성능, 장군봉능선 등이 그중 뛰어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계절 어느 때 찾아도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수림이 돋보이고 폭포며 담소가 기암 절벽과 어울려 명산임을 실감케 한다. 특히, 눈에 덮인 겨울의 계룡산과 단풍에 물든 가을의 계룡산은 일품이다.

이산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평일에 시간을 내어서 답사하는 게 좋을 것이다.

## 등산코스 안내

산세도 아름답고 고적과 명소도 많은데다 교통편도 좋아서 언제나 많은 인파가 줄을 잇는다. 현재 정상 일대는 출입제한이 되고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코스를 잡아야 한다.

### ● 제1코스 8km 2시간 30분

주차장(1.8km, 30분) 동학사(1.2km, 30분) 오늬탑(1.2km, 25분) 금잔디고개(3km, 50분) 감사(0.8km, 13분) 주차장

가장 많이 이용되는 코스로 일명 관광 등산 코스라고도 불린다. 길폭이 1~1.5m에 이르고 이곳의 명물인 동학사, 오늬탑, 감사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역코스도 해도 무방하다.

### ● 제2코스 8.8km 3시간

주차장(0.8km, 15분) 감사(3.2km, 1시간 10분) 연천봉(1km, 20분) 관음봉(1km, 25분) 은선폭포(1km, 20분) 동학사(1.8km, 25분) 주차장

감사에서 조금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오고 안내판이 있어 여기서 오른쪽 계곡길로 들면 된다. 처음부터 단풍나무, 참나무 등 활엽수림이 울창한 아래로 시원스레 흘러내리는 계류를 끼고 한창 흘러가다 왼쪽 지능선으로 붙어 급경사를 올라가면 연천봉이고 그 아래 등운암이 있다. 관음봉에서 은선폭포로 비탈길을 내려서면 동학사까지는 다소 완만한 숲길이다.

### ● 제3코스 10.2km 4시간 20분

신원사(3km, 1시간 20분) 등운암(1km, 20분) 관음봉(2km, 1시간, 20분) 삼불봉, 금잔디고개(1.2km, 30분) 오늬탑(3km, 45분) 주차장

**신** 원사에서 다소 규모는 작지만 고찰의 멋을 은연중 느끼면서 중앙단에 이르면 이곳 일대의 가치를 재삼 인식하게 된다. 계류를 끼고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고왕암이 또한 발길을 잡는다. 계룡산 중에서 가장 인적이 드문 코스라 이따금씩 혹시 길을 잘못 들지 않았나 걱정이 된다. 고왕암에서 20분쯤 올라가다 계류 건너기 직전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즉 계류를 건너서 연천봉쪽 계곡길로 들어서야 한다. 길이 희미해지고 울창한 수림이 이어진다. 계속 올라가면 감사에서 올라오는 능선 마루턱에 이른다. 왼쪽으로 100m쯤에 등운사가 있다. 여기서 관음봉까지 올랐다가 삼불봉으로 이어지는 암릉길로 들게 된다. 철책을 잡고 내려가면 이때부터 아찔하기만 암릉길이 삼불봉까지 이어진다. 금잔디고개로 나오면 이후로는 관광 등산로로 오늬탑을 거쳐 동학사로 이어진다. 현재로서는 장군봉과 신선봉을 잇는 암릉 코스와 더불어 그중 묘미가 있는 코스다.

## 유적 소개

**갑사(甲寺)** : 백제 때 (420년)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창건, 화엄종 10대 거찰의 하나로서 경내에 대숙전, 천불전 등 10여개의 당우와 함께 부도, 칠당간지주, 동종, 월인석보관본 등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외에도 백제 때의 유적이 남아 있다.

**동학사(東鶴寺)** : 신라 성덕왕 때(724년) 상원선사의 발언으로 회의를 화상이 창건했다 한다. 비구니들의 불교 전문 강원으로 서 경내에 초혼각 터, 숙모전, 삼은각, 동학사 등으로 유명하다.

**오늬탑(淸涼寺址塔)** : 일명 남매탑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동학사에서 갑사로 넘어가는 중간지점에 두개의 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애뜻한 사랑이 불심으로 오늬가 되어 후세에 많은 불제자를 길렀다는 전설이 담긴 5층, 7층 석탑의 2기로서 축조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신도안(新都內)** : 태조 이성계가 새 도읍지로 정했으나 교통이 불편하여 버려진 곳이라고도 전해지는데 도량과 초석의 암석이 100여개 이상 남아 있다.



오늬탑

또한 정감록 풍수설에 의한 십승지지의 명당이라 하여 화를 면하려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잡신과 잡종교의 온상지로 토속신앙과 무속 등 40여 신흥 종교가 모여 있었던 곳이나 현재는 대부분 정리가 되었다.

## 교통 및 숙박

서울-대전, 고속버스편 6:00-21:40 5분마다. 경부선 열차편 20분마다 대전-동학사 시내버스 10분마다. 서울-공주 고속버스 7:00-19:00 40분마다. 직행버스 남부버스터미널발 6:30-19:10, 10분마다. 공주-갑사 직행버스 10분마다/동학사 및 갑사의 주차장 부근 관광단지여 여관과 식당이 산재해 있다.

가이드 「한국100명산」 안경호

-평화출판사-